

선배들이 걸어온 발자취

김 정 선 (전, 경북지부장)

전쟁은 문화를 파괴한다는 말은 들었으나 내 자신의 경험으로 과연 전쟁은 인류의 찬란한 문화를 말살시키는 적이라고 생각되었다.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던 간호사업에 대한 교재를 이 전쟁으로 인해 다 잃어버리고, 답답하고 안타까워 함은 상상도 못한 일이다. 제 1차대전시에는 일제압박아래서 강제로 학교 천교생들이 일본군이 출전 할때 전승을 비는 만세를 부르러 역에 갔다. 돌아오는 길에 야맹증으로 집을 찾지 못해 몇시간 동안 암흑에서 헤매이며 막심한 고통을 당하였고 제 2차대전에는 조선간호사업의 지도자들인 구미선교사 간호원들이 전쟁으로 철수하게될때 조선간호부회 총책을 맡으신 Miss-Edma Lawrence께서 간호교육에 대한 모든 출판물을 다 나에게 맡기고 가셨다. 나는 이 많은 책들을 인수받았으나 단칸방에서 객지생활로 여태다 돌곳이 없이 당황했던 차에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선교사들이 다 귀국하여 그집에 있게 됨으로 그집 지하실에 보관해두었다. 제 2차대전전쟁이 끝나기 1년전 일본은 우리민족의 성까지 빼앗고 일본성으로 고치게하였고 또한 우리말 쓰던 책은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 많은 책들을 휴지로 처리하게 될때 섭섭함과 애절한 마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몇권씩은 참고서로 남겨두었다. 이때 내가 보관했던 책들은 조선간호부회 출판부에서 발간한 간호역사, 실용간호학, 공중보건학 그의 소책자들이었다. 1935년부터 나는 캐나다인 선교사 Miss Rosenberger와 같이 영아보전사업을 하였는데 서술지구를 3개처로 나누었는데, 태화기동보전소 왕십리아동보전소, 냉천야동보전소등이었다.

이 사업에 특수한것은 생후 1개월에서 만 5歲까지의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사업인데 상시 진행되는 일은 건강진찰, 가정방문 자모회, 육아법상담, 임부진찰, 임신부상담, 조산하는일, 인공영양등이고 특히 빈민과 폐결핵이나 심장병있는 임부를 위해 산아제한 일도 하였고 연중행사로 연합적으로 우량아 심사대회와 시상식을 하였다. 이때 나는 태화기독교사회관에 있는 태화아동보전소에 책임자로 일하다가 사업의 주인공인 선교사들이 전쟁으로 귀국하게되니 할수없이 이 기관에 모든 사업이 다 중단하게 되었다. 이때 어머니들의 말이 아동보전의 제일 중요한 이 사업을 중단한다는것은 너무나 애석하다고하여 중단하지 않기를 원했다. 나는 이때 생각하기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선교사들이 다시 올때까지 계속하다가 저들에게 다시 인계 해줄것을 결심하고 태화기독사회관에 특별교섭을하여 내 개인사업으로 인수를받고 일본인들이 행정하는 중로경찰서 위생국에서 정식인가를 얻어 선화영아보전소라는 간판을 달고 중절대로 계속했다. 그후 6년이 지나 1945년에 해방이되자 미군정이 실시될때 「누카」대위가 와서 말하기를 서울시 보건과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 시청간호사업과장으로 일해달라고 너무나 간곡히 요청함으로써 할수없이 자리를 옮기고 내가 하던일은 변함없이 계속하게 됨으로 내가 가지고 사업하던 모든 비품과 물건을 시청보건과로 가지고가서 3년간 일하다. 처음 갈때 약속한대로 이행하지않음으로 사표를 제출하고, 이미 태화기독사회관에 다시 내한한 선교사들과 상의한후 모든 비품과 물건들을 본소로 가지고와서 선교사들과 같

대한간호의 발자취와 전망

이 사업을 계속하였다. 이때 나의 숙소는 남산 밑에있는 고봉경선생의집인데 이때 그의 동생인 고황형박사는 영국에 시찰차 가셨고 나는 미국 뉴욕 Polyclinic Hospital에 간호학을 전공하려 1950년 2월 1일에 서울을 출발했다. 이때에 나의 모든 소유인 간호사업에 대한 책과 서류의 복본은 물건들을 안심하고 이집에 맡기고 떠났다. 공부기간을 1년으로하고 갔으나 돌아가야 할 그때에 고국의 땅은 전화로 눈물없이 볼수없는 처참한 광경이었고 계속적으로 전화가 심하였으므로 합수없이 1년을 더 연기하였다가 1952년 4월에 귀국하여 동산병원에 자리를잡고 서울에가서 살던데 돌아가서 사랑하던 친구도, 물건도 간곳이 없고 오직 내가 쓰던 다리미판 한개와 통조림병 한 개뿐이었다. 외국에가서 많이 배워가지고 와서 일을 잘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고이고이 싸두었던 교재들이 간곳이 없으니 기가막히는 일이다. 거기에는 조선간호보회보가 1권부터 빠질없이 있었고 출판부에서 발간한 모든 서적과 연구각본 3개와 보전과 간호사업에 대한 책들이 많이있었다. 전쟁은 참으로 문화를 파괴시키는적이었다. 지금도 가끔 그책이 있었더라면, 그 각본이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자주난다. 이러한 형편에 있는 나에게 1923년을 전후한 당시의 발자취를 게재해달라는 청탁을 받을때, 네, 아니요, 의 대답이 막막하였고 오직 잃어버린 책들이 생각나고, 아쉬운 생각뿐이다. 아—물인정한 전쟁이여 어찌하여 우리선배들의 걸어간 찬란한 발자취를 지워버렸는가요? 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탄하였다. 저들의 남긴 역사의 확실한 기록은 없으나 내가 들은대로, 기억나는대로 몇가지 사건을 기록코저한다. 빛나는 간호정신, 간호역사책에 나타난 사건은 기억하나 이름과 때는 기억이나지 않는다. 1924년 서울 전 지역에 호열자가 만연되어 사망자가 수없이 속출되었다고 한다. 이때에 병원당국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병마속에 간호원 누구를 지정하여 보내는일도 어려워 매우 당황하고 주저하게 될때에 거룩한

인류에게 불타는 어느 간호원 한 분이 자원하여

위험속에 뛰어들어가 많은환자를 간호하여 사경에있는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에 큰공을 세웠다고 한다. 이 얼마나. 장엄한일인지 그의 참된 희생과 봉사정신은 현재 간호원들 마음에 깊이 심어지기를 바란다. 대홍수와 응급구호반, 나는 학생의 신분으로 아무경험도 없고 구호반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무서운 장마철을 겪었다. 그때가 1924년인지 1925년인지 기억이 확실치않다. 억수같은 비가 2,3일간 계속 쏟아지더니, 신든사에서는 호외가 돌았다. 그 호외에는 침수된 가옥과 유실가옥들의 사진과 서울전역의 어느곳들이 잠겨있다는 글이다. 또 들리는 말이 한강부근 전역이 다 물에잠겼고, 한강 상류로부터 접이 떠내려오고 사람과 짐승이 떠내려오며 아우성을 친다고 하며 어떤곳에서는 나무가 떠내려오는데 나무가지에 사람이 올라 앉아있어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나, 그 급한 물속에 어떻게 구할 도리가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서울시민에게 식수를 주는 한강수도국은 흙물에 잠겨 식수난으로 큰 곤란과 혼란속에 있었는데 이때에 세브란스병원 구내에서는 몇 십년동안 물 뚜껑으로 덮어두었던 우물을 매우 긴급하게 사용하는것을 보았다. 이러한 무서운 수마로 인해 많은 사상자들이 생겨났다. 이때에 간호원들은 구호반에 참가하여 위기에 있는 생명을 구하며, 간호하는 일에 크게 활동하여 간호사업의 공로가 컸다. 만보산사건에 구호반 파견, 1931년 4월에 만주 길림성에있는 만보산 한부락에 우리나라 농민들이 살고있는 곳에서 발생한 일인데, 그 내용은 180명의 농민을 위한 토지개간으로 물을 뚫어대는 일로 중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는데서 총들이 생겨, 사상자가 발생되자, 각신문에 보도되어 민족정신에 흥분이되어 만주각처에서 중국인과 우리 조선 사람들 사이에 국가적인 싸움이 벌어져 많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는 비보를 듣자 세브란스병원에 근무중인 간호원 몇사람을 급송하여 많은 수고를 하고, 도왔는데, 특히 이효경씨는 간호원의 책임자로 많은 생명을 구하며 중환자를 간호하는 일에 있는 정

성과 거룩한 인류애를 최대한으로 발휘하였다. 이때에 회원들은 저들이 만주로 향해 가실때 저들을 격려하기 위해 특별음식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역에 나와 환송하였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민족정신에 불타, 각처에서 중국집을 부수고 습격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

조선간호부회에 가입.

나는 1927년 3월에 졸업하고 5월 12일에 세브란스병원 간호원장 Miss Edma Lawrence 집에서 개최한 제 4회 조선간호부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신입회원으로 등록했다. 이때에 참석했던 회원들은 여러 선교병원에서 온 외국선교사 간호원들과 우리조선인들의 대표들이었는데, 회원수는 40명정도이었는데, 외국인이 반수였다. 이들은 조선 전국 각처에서 왔는데, 선천, 평양 회령, 성진, 함흥, 원산, 해주, 인천, 대구, 부산, 전주 지방이었다. 처음으로 많은 서양인들과 같이 행동하며 모든 일에 같이 참석하게 되니 신기하게 생각되어 외국에 온것같은 기분이었다. 회의 사업은 여러부로 나누었는데 출판위원, 파견제정위원, 교과서제정위원, 재정위원, 세칙위원, 공천위원 치하위원등이었다. 총회가 끝난 후에는 창경원과 비원에 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10회 정기총회

1933년 5월 12일에 역사가 깊은 경상북도 대구시 동산 기독병원에서 조선간호부회 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때에 특별한 순서는 5월 12일 오후 7시에 대구 공회당(현 시민회관)에서 많은 귀빈들을 모시고 나이팅게일의 생일을 기념하여 그의 고귀한 간호정신을 간호원들이 이어받는 뜻에서 특별한 순서로 대성황리에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그리고 그 이튿날은 역사가 깊은 고도 경주를 지나 불국사와 석굴암을 구경하고 선조들의 남긴 문화와 고귀한 정신에 감격했다.

간호지도자들과 우리나라의 간호사업과 인재를 많이 육성한 초창기 지도자들은 전부가 나이팅

게일의 정신과 교육방법을, 이어받은 구미선교사 간호원들이었다. 이들중에서 제일 유력한 지도자로 내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은 Miss Ester Shields, Miss E.J. Shepping, Miss Edma, Lawrence Miss E.J. Rosenberger氏였다. Miss Ester Shields는 1897년에 내한 하시어 세브란스병원에 초대 간호원장으로 일생을 십혈을 기울여 봉사하셨고, 철저한 간호정신으로 환자를 내몸같이 사랑하였으므로 세브란스의 천사라고 불리웠고 특히 회잡에는 모든것을 다 거절하시고, 기념으로 외래환자들의 상시 음료를 위하여 여러곳에 분수기를 설치했다. 나는 그에게서 위생과정을 배웠는데 언제나 웃고 온유 겸손하였다.

Miss E.J. Shepping氏는 전남기독병원의 간호원장으로 지도력이 월등하여 조선간호부회 발기회부터 회장으로 활약하셨고 회장선출에 있어 여러번 재선되었으므로, 여러해동안 계속하여 회육성에 많은 수고를 하셨고, 특히 국제간호협회 가입을 위하여 최선의 힘을 나한 결과 1929년에는 국제간호협회 가입 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되었다. 그러나 회의 규약에 의하여 독립국이 못됨으로 애석하게도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오늘의 우리 협회가 자라난 경로를 살펴 볼때, 이분의 공로를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Miss Edma Lawrence씨는 1920년에 내한하여 세브란스병원 2대 간호원장으로 간호학교 교장일을 역임하시다가 제 2차 대전시 선교사들의 철수로 1940년에 귀국하셨다가, 1947년에 다시 내한하여 동산병원에서 시무하시다가 1957년에 정년·은퇴로 귀국하셨다. 나는 이분에게서 3년간의 간호교육을 철저하게 받았으며, 파복도 지금에 비해 두과목이 더 있었으며 실습과 환자간호는 지금보다 월등하여 내가 받은 교육이 훌륭했다고 자랑하고 싶다. 나는 졸업후 수간호원직에 2년간 일한후 사감선생으로 이분과 같이 간호실습을 가르치고, 학생지도 감독하는 일을 7년동안 같이했다. 나는 같이 일하는 동안 이분이 하는 모든 일에 있어 정확하고 철두철미하며, 환자

대한간호의 발자취와 전망

를 내용같이 사랑하는데서 배운것이 많았다고 생각될때 과연 이분은 훌륭한 교육자로 많은 인재를 배출시켰다고 본다. 현재 간호계에서 활약하는 지도자들 또는 나이팅게일기장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이분의 제자이었다. 이분은 한국의 간호원회와 간호사업을 위하여 거룩한 인류애와 참된 간호정신으로 전생애를 바치신 가장 위대한 공로자로 우리가 크게 숭배하고 그의 공적을 힘껏 찬양해야 될 줄 안다.

Miss E. J. Rosenberger씨는 캐나다에서 파송된 선교사 간호원으로 서울 동대문부인 병원에서 간호원장으로 시무하였다. 이때에 우리나라 가정위생형편과 유아사랑율이 높은것을 보고 보건 간호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어 간호원장직을 사임하고 1924년부터 보건간호사업에 전력을 다했다. 나는 1935년에 이분과 같이 일하였는데 주로 영유아 보건과 입산부지도, 조산, 보건교육이었다. 이사업을 시작한지 몇해되지 않았으나 얼마나 사업열이 강하고 열심으로 하였는지를 발전을 보게되었고, 어머니들은 점점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으며 나 자신도 많은 경험을 하는 동안 더욱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분이 하시던 사업 진행프로그가 지금도 그대로 되었던하고 아쉽게 생각된다. 이분은 우리나라 보건간호사업에 창시자로 큰 공로자로 생각한다.

간호교육: 역사적인 기록의 참고 재료가 없으므로, 세브란스 간호교육외에는 말할 수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내가 세브란스간호원 양성소에 입학할당시 1924년에는 입학자격을 고등학교 2학년이상의 학력을 가진자에게 한한다고 하였다. 언제부터 이법이 시행되었는지는 정식공고 없었음으로 알 수 없으나 나보다 1년 선행인 1923년의 입학생들은 극중이 많았고, 우리반에는 전원이다. 고등 2학년 수업자인것을 보던 1924년부터 입학자격을 고등 2년이상 학력자가 확실하다. 이때에 특수한 점은 학력과 연령

의 차가 극심했다. 예를들면 우리선배나 후배반의 학생들 중에는 대학졸업생, 과거의선생, 혹은 전도부인으로 일하던 사람이었고, 나이는 16세, 25세, 30세, 35세 등의 학생들이 있었다. 교육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인문학)은 지금보다 많이 떨어졌으나 간호교육은 간호사업의 시발처인 서구에서 온 사람들이 직접 가르쳤음으로 모든 교육이 미국 영구식 그레이트, 철저했고, 간호실습과 환자간호는 지금보다 월등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의 방향: 다중을위해 어떠한 일을 할 때에는 지도와 감독이있어야 되고, 지도감독을 잘 할려면 권리가 필요하다. 과거 미군정시에는 보건부에 간호사업국이 있었고 각도에는 간호사업계가 있었고 문교부에는 간호고문관과 간호교육책임자가 있었다. 만일 이행정기구가 변함없이 지금까지 계속했다면 얼마나 많이 발전되었을까 생각된다. 그러나 이 행정기구가 실시된지 몇해 안되어 미군정이 철수한후 국이 파괴되어 현재는 유명무실한 형편에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내가 미국에 갔다 귀국하는 길에 의료사업 행정하는 관청을 방문했다. 너무 오래되어 기억이 확실치 않으나 간호사업 행정자의 위치가 의사들을 위한 행정자의 위치와 같았다고 생각된다. 어떤 외국인이 우리나라 간호사업에 대하여 문의했을때, 나는 솔직하게 평소에 담당했던 생각으로 그대로 말했다. 간호원들이 아무리 간호사업을 잘 해볼려고 애를쓰고 또 싸도 국가에서 일 할수있는 행정적 기구를 만들어 주지 않으려고 하니 어떻게 일 할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앞으로 우리나라 간호사업이 세계수준에서 지도급이 될려면, 행정면에서 차지해야 할 적당한 자리를 찾도록 총결하여 반드시 성공하기 바라며 특별히 말하고 싶은것은 근일 참 간호를 부르짖는 이때에 입상에서 일하는 간호원들은 환자를 간호하는 모든일에 단편을 주도록 힘쓰고 저들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시기를 바란다.